

인연을 짓다 (상)

황해성(군산시 지곡동)



그림 · 문병성

아주 어린 적 초등학교 시절 가정환경 조사를 쓰면서부터 종교란에는 '불교'라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30여년을 살아왔지만 정작 젊게 가본 것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잠깐 들러 본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종교란에 불교라고 동그라미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초파일이면 등을 밝히러 젊게 다녀오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탓일 것이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 한 후 군대를 다녀오고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소박하지만 행복을 느끼며 살아오던 나에겐 불교는 그리 큰 부분이 아니었다.

아니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대한 어떤 오만한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 부처님이나 예수님께 빌고 기도하며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에게 '마음공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친구는 '마음공부'를 배우러 '한마음선원'에 다닌다고 했다. '마음공부? 아니 마음도 공부를 해야 하나? 한마음선원은 또 뭐야, 혹시 거거 아니야, 도를 아십니까 하는...'

지레 짐작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평소 그때 친구들과 달리 평온한 인상에 마음도 넓어 친구를 말할 줄도 모르는 가끔 도인같은 말도 곧 잘 해서 황당할 때가 가끔 있기도 했지만 믿음직스럽던 그 친구가 진지하게 한번 가라고 권유했고, 궁금증이 일어 같이 가보기로 하였다.

일요일 아침 전철을 타고 도착한 한마음선원의 첫 인상은 내 짐작이 맞는 듯한 모습이었다. 도심 한가운데 현대식의 대리석 건물. 질이러면 조용한 산속의 고풍스러운 목조 건물에 예쁜 단청과 맑은 풍경 소리를 연상했던 나에게 한마음선원의 모습은 조금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친구를 결눈질로 따라 하며 어설피거나 마법회를 마친 후 친구의 주선으로 스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스님께서 "한마음 주인공에게 맡겨라, 그리고 지켜 보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 나에겐 스님의 귀한 말씀이 귀에 들어 올 리가 없었다. 그저 괜히 왔다 싶고 빨리 집에 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친구가 선물한 <삶은 고가 아니다>라는 책을 손에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침대에 던져놓았던 책을 다시 찾은 건 며칠이 지나서였다.

아간 근무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읽을 책을 고르다 '한 번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삶은 고가 아니다>를 들고 출근을 했다.

책 표지에 실린 대행스님의 사진을 보며 웬지 모를 푸근함을 느끼고 읽어 내려간 책

비가 내리는 출·퇴근길은 언제나 혼잡하다. 그날도 매일 다니는 사거리 길이 꼭 막혀 있었다. 이렇게 막히다가는 출근이 너무 늦을 것 같아 지름길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행동을 돌렸다. 지름길은 차량 통행이 뜸한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였다.

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조심하며 달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 도로에 하얀 것이 보이는데가 싶더니 차에 "똥" 하고 무엇인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똥지?" 하고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아주머니 한 분이 내 차 앞에서 넘어졌다 일어 나며 신발을 찾고 있었다. 난 내가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밀려 겁이 났다.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우면서 "괜찮으세

히 외상은 없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신을 소리내고 있었다.

가슴이 꼭 막혀왔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주머니를 가슴에 안고 난 소리를 질렀다. 뒤따라오던 차들은 멈춰서서 옆으로 비켜 갈뿐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며 나 자신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잘못 눌러가며 가까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에 구조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5분 여 동안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골목길에 혼자 버려진 아이의 심정이 그랬을까? 막막하고 무섭고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아주머니들은 왜 여기에 있었던 거야?'

쓰러진 아주머니를 안고 우산으로 비를 막으며 119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119 구급차가 와서 아주머니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보고 난 후 조금 정신이 돌아왔다.

우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 현장 사진과 차 상태를 보니 아마도 아주머니들이 우산을 쓰고 무단 횡단하는 것을 비 오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났던 것 같았다.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우선 아내에게 전화로 사고 소식을 전하고 가까운 선배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세파랄게 질린 아내와 선배가 함께 병원으로 찾아왔다.

'제발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아무 일 없을 거야. 빨리 달리지도 않았는데 말이 다치기야 했겠어?' (계속)

마음공부한다는 친구 말에 궁금증 일어 법회 참석하고 큰스님과 대화 기회도 가져 공부에 대한 생각 잊혀질 무렵 교통 사고 내

속엔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인공을 믿고 구도의 길을 걸으신 스님의 이야기가 때론 눈물겹고 때론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생생히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책 속에서 대행스님을 만난 후 '마음공부'라는 것과 선원에 대한 첫 인상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선풍 '마음공부'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그 후 그렇게 '마음공부'라는 단어를 천천히 읽어갈 즈음이다. 온 나라가 크리스마스 와 연말 분위기에 모두들 행복할 미소를 짓고 있던 그 해 겨울 내내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그 날은 겨울 비처럼 꽤 많은 비가 내렸다. 3교대 근무를 하는 나는 저녁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저녁 6시에 집을 나왔는데도 밖은 철쭉 같은 어둠이 내려 앉아 있었고 모두들 자동차 불빛을 밝히고 서둘러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다.

요?" 하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내 신발, 신발 좀 찾아 줘" 하며 일어나더니 신발을 찾으려 다녔다. 다행히 많이 다치지지는 않은 것 같아 안심이었다.

그런데 차에 치인 사람은 아주머니 혼자 아니었다. 차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더 쓰러져 있었다. 그 아주머니는 의식이 없는 지 쓰러진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특별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수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4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수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spark@buddhapia.com

상쾌한속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 해소, 혈압조절, 혈당상승억제, 전신에 근육 고루 전달, 기억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항상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목련사
● 주 지 : 보타(성낙오)
●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환서 2리 325-1

상기 인(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7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다보사
● 주 지 : 현덕(김관근)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2가 156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대한불교법회종 총무원장 법하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있는가?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고 있는가?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일간난방비 비교표 ◆ ● 실내난방 평균 10평 기준 ● 하루 10시간 사용 ● 2005.12월 기준

구분	필름난방	실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등유
소비자 가격	86.8원/kw	36.8원/kw	640원/m ³	668원/m ²	1250원/m ³	1000원/ℓ
연료비(%)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평)	588kw	1650kw	124m ³	1569kw	124m ³	182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없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25평 난방(1110시간 기준) 시공합니다 (연료비 50~75% 절감)

25평 난방(1110시간 기준) 시공합니다

● 유사용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쿠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설치하면 좋은 곳 :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전안·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진심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불법이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의 수로로 인해 불법이 생긴 것입니다.

- 당대 불법수행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금보리 상사님의 말씀

보리법문의 창시자 금보리 상사님은 어려서부터 청정고원(靑藏高原)에서 수행하셨습니다. 18년의 고수고행(苦修苦行) 끝에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원만한 자비와 수승한 법력(法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원을 발원하여 세간(世間)에서 포교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보리상사님은 자신의 수행과 득도한 경험을 통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수행과 깨달음에 가장 적합한 수행방법들을 창시해 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7일간의 실증실수(實證實修)를 통해 보리법문만의 우수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대에 맞는 적당한(應機) 수행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상사님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보리수행방법을 통해 무수히 많은 수행자들이 큰 성취를 얻으셨습니다. 이생에서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신다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不可不修). 여러분이 "금보리(金菩提) 세 글자를 들으시고 희열과 놀라움을 느꼈다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사님께서 제자를 보내 한국에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연이 있는 대중들을 위해 7일간의 수행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연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수행반 일정 : 2006년 10월 13일(금) - 10월 19일(목)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9-16 한국보리법문
■ 문의 전화 : (02)3471-9183 / (02)586-6176